

東西의 文明을 折衷하고 東西의 法俗을 調和하여 社會의 安寧을 保하여 人類의 幸福을 享하라 하면 佛敎의 精神을 有함이 안이 되겠다何以故오면 釋迦牟尼는 第一奧妙한 敎義를 宣傳하였다 智慧를 主로 하여 世界를 平等으로 觀察하고 社會를 平等으로 觀察하고 衆生을 平等으로 觀察하였다 此의 平等은 他가 안이라 一段 精神이 是也 로다 富貴와 貧賤과 의 差別은 有함이 아니라 快樂을 感하여 苦痛을 感하는 心理는 一般으로 齊平하다 人類만 然할 뿐이 아니라 一般의 動物은 皆然한 것이다 釋氏의 敎訓은 多溫和平 順하여 耶穌와 又 危激치 안코 孔氏와 又 繁瑣치 안타 그리히서 印度의 固有한 四民의 階級 (婆羅門族 刹帝族 吠舍族 農工) 은 自然히 打破되고 말았다

蔽一言하고 佛氏의 敎義를 沈潛反覆하면 何世界何社會何時代를 無論하고 通而不滯하고 活而不死하여 데오 크라씨에 도 適合하고 쓰씨알의 合도 無妨하며 其他 世界主義個人主義까지도 適當치 안은 것은 萬無하다 余는 以爲 世界의 文明이 發達될 時佛義는 愈益 採用될 時로 確信하는 바이로다

宗 教 的 新 意 義 (續)

竹 軒 金 晶 海

七、精神上的突破

大凡 宗敎의 努力의 極致는 全히 精神의 大飛躍을 試하여 物質의 纏縛을 突破함에 在함이 然한는 是는 實際上一으로 不得할 難問題가 居在하는 도다 第一 物質을 離하고 果然 精神만 獨專한 狀態는 何者인 가 眞實로 雲을 擱하는 話詮이니 閉口 言만 갖지 못하도록 現히 極樂淨土의 莊嚴과 又 其 彌陀佛國土中에 人天生活의 狀態를 諸經論中에 說示한 바를 讀破하여 도 皆皆히 物質의 描寫를 不免하였노라

何者든지 其一事만 專思하고 死去하면 身體上 諸苦惱를 逃避하고 精神上 安樂地를 得할 가 思考하고 自殺하는 者—有함이 是는 眞實로 未來는 一蓮托生을 目的한는 可惜한 生命을 捨去하는 者이니 愚俗 陋見에 不在하면 小乘流의 灰身滅智에 不外함이 是는 元來 迷信에 執着됨이니 憫笑 不堪한 바이로다 此等 突破는 突破로 되 感心을 不得함이 니라

又一心一向으로 難行 苦行을 堪行하며 乃至 座禪工夫하여 生死의 關門을 突破하고 一大事를 悟了코자하여 掛念하는 者—有함이 然한는 此를 以하여 果然 何等 精神上의 自由를 得함이 精神上의 自由를 得함인 人의 活動을 見코자하노라

元來禪的生活은身心을 단연하여 慧頭가凡人보담 明朗하고 萬事에對하여 疑端없이 進行하면 人이人된 人格을 圓滿히成하고 滿足한 活動을함이 곧 大悟徹底하여 自由無礙의 境界에 到達함이니 此境을 得한 後에 更히 身を 鍛鍊하면서 社會를 爲하여 破壞도하고 建設도하며 人民을 爲하여 抑制도하고 助力 贊揚하여 國民 民福이 되도록 活動함이 佛敎의 本旨이며 祖師의 老婆心切이며 敎祖의 精神上에 配從하는 者이라 然호디 朝鮮의 禪客 換言하면 雲水 衲子는 果然 如何한 思想과 如何한 覺悟를 有한 者— 幾人이 되는지 甞고자하노라 釋迦도 六年을 修行한 後에 國家 社會와 衆生을 爲하여 活動한 지라 然호디 朝鮮의 禪學者 兼其他學者의 修養은 盲目的이라 童眞으로 부터 老古에 至하기까지 何物이나 見惶할가 하여 虛送歲月하다가 死去하니 何以 出家한 本意가 在하리요 大悟라 함은 白日이 西沒하고 夜三更에 月光이 現出하는 것갓치 何等 物事이 目前에 有함은 萬無함이니 此를 待之하고 一生을 送하고 社會에 對하여 活動도 업고 人民에 對하여 一句의 勸善 懲惡도 아나 하면 佛子된 本이 何에 在하리오 故로 釋迦도 現身說法함이 오决코 現身以外에 何等 行動을 甘受함이 無하니라 法身說法과 其他 學說이 有하니 此는 理想的의 抽象論에 不過하니라 余의 精神上의 突破라 함은 此等 盲目的 修養을 拋棄하고 積極의 合理的 修養을 하여 一分이라도 敎祖의 意에 配合하도록 할지이다 換言하면 朝鮮 僧侶의 禪客도 何等 別物을 悟得코자 하여 水下石上에서 一生을 無由에 附치

말고 幾年間 精神을 修養한 後에 是實 社會를 爲하여 活動하며 佛敎를 爲하여 努力한다 가 死去할지이다 不然하면 諸君의 修養도 水泡에 歸하며 難得한 佛法門中에 入았스니 善良한 佛弟子가 되지 못하고 反히 佛祖의 罪人이 될지니라

此는 禪의 修養이니 此等 難行의 道를 外하고 別로 易行의 法門이 有하니라 卽念 佛門의 敎義는 何等 雜作이 無하고 彌陀如來의 本願力의 由來를 領解하고 그 本願力을 唯信함으로 因하여 忽然히 正定聚不退轉의 位에 住하며 眞實 報土에 往生하여 無量壽의 貴尊을 成하는 者이라 是가 今生에 是尙히 物質의 束縛을 脫치 못하였스니 然호디 其 精神上의 自由를 得을 看做하듯도 다 大哉라 如斯호니 自由를 得을 以上은 死하여 極樂의 門에 無礙突入함과 共히 生居할 間에도 自由無礙의 活動을 見코자하노라

此亦 實際의 言語로써 云하면 難行、易行、聖道門、淨土門等에 만 信賴함은 實로 眞의 精神의 自由는 不得하였다 思想하노라 六大無碍에 卽事而 眞도 實際生活에 是었던 程度까지 自由無礙됨을 得았스니 哲學的 敎相과 現實生活과는 元來 大相違가 有함을 思하며 加持 祈禱의 効能은 十分 驗知치 못하였스니 千里眼이라 함과 精神療이라 하는 事는 一般 敎界에 追追 盛行한 지라 然而 此를 以하여 余는 아 奇 精神의 自由를 得지 못하였다 하노라 如何히 曩 鳳目으로 觀하여 도 其는 僅히 精神自由의 一端이 됨에 不過한 지라 如何하야 도 眞으로 精神自由를 保證함에는 此의 現實한 社會가 各方面에 就야 皆 改革되지만 是 未호지 然이니 今日 通例의 所謂 社會와 改良과 如함은 實

은大囚되야官廳有司의心を以야改良이요下層貧民의心を以야行호는事
 는無호며救濟는極히言호면感激호迷信이라고도호를不知호깃스니其處가宗教的
 突破의必要호所以이라上來의種種辯明호도畢竟其處에歸着호이로다衣食이足호
 며禮節을知호는諺通의精神自由에는先히物質의生活의困難브러解脫치안호면
 不可호도다然而其의同時에社會의生活、家族의生活의種種호境遇主義브러도解
 脫치안호면不可호니將來의宗教는精自神由를目的으로호며悟道의念佛을方便
 치안호차라리社會의宗教로써一大盡力을要호지라一宗門만爲主호거는一寺院만
 爲主호야活動호는宗教的計畫은如何호호여도到底히現實社會에除外됨을不免호
 지니라如斯호事에由호야余의所謂宗教의新意義는大體的明瞭히된지라勿論後生
 安樂을願호은無用호다호은아니는其도大端히必要호는그러는現世에就호야西方
 極樂을描寫호고單히正定聚不退轉이라云호지말고今生此身이卽彌陀의淨土에比
 較호게되면愈好호깃도다聖道門便으로는元來其에異議가無호는오죽호는個人的
 解脫과同時에社會의解脫을高調호야見코자호노라解脫은突破이니라卽茲에所謂
 宗教의新意義는又社會의解脫이오十方衆生이皆皆如實히精神의自由를得호事를
 圖코자호노라

歐洲大戰爭이起호後에비류구손은巴里의學士會院에서一大演說을試호았호디
 其一節에曰「今次의大戰爭은獨逸의科學的物質的障礙에對호佛國民의精神의自

由를要求호호一大勢力이有호니舉國一致호야愛國心を發露호야譽名을后讓호어
 傳치안호면不可호다」고激烈히말호였스니此等熱烈호者一有호은精神的大飛
 躍이라言호깃더라

故로殊特호人格은一種宗教的突破가無호면人類의大事業을實行호기難호니余
 는我東洋人特히槿域의民族은將來의大活動을眞實宗教的突破에就호야호事를希
 望호노라朝鮮宗教界의靑眼紳士一特히我佛敎界僧侶又篤信者의게此心이有호者
 一幾人이호는되호고?然호는余亦一思想的學術的으로一言을表示호는바니부디以
 人廢言치마시기를切望호노라

八、二重人格을突破

佛敎가他宗教에比較호야越等호기寬大호고深遠高尚호야世界의宗教가됨은다
 름아니라其敎主釋迦가人格을完成호야人格的作用을試호야其福音을世界民族과
 社會를爲호야唱導호에在호니라釋迦의心理에는能所가無호며彼此가無호며內外
 가無호며私曲이無호며取捨가無호며隱蔽가無호야萬事萬般에人類의幸福되는事
 는何者든지忌憚업시唱導호며社會의公益되는事業은何者든지辭讓업시經營호야
 實行치안호니호은無호다然호디其弟子된吾等法侶가敎祖의宗旨와祖師의家風을現
 實世界의換言호면一切의科學的文明、物質的文明、精神의文明이極히發明되야向
 上호此時代의民族、此時代의社會、此時代의思想界를支配호고引導호우리가엇지

人格的資態와 精神的修養不足하고야 何者를營함에 障礙를 進行하며 何人을 說破
 함을 抵抗업시 聽從하리요 故로 余는 吾等法侶가 二重人格을 突破하기를 主張하노라
 若二重人格을 突破치 아니하고 欺罔의 盲目的 行動을 作하면 諸君의 行動은 正當을 行
 動이 아니고 不正者이며 諸君의 善은 眞善이 아니고 僞善이며 諸君의 事業은 公正을
 事業이 아니고 偏重을 事業이 될지라 祖述을 固執하고 新規를 建設하지 못하면 時代의
 後人을 作할지라 三千年前의 佛祖의 戒律이 三千年后 今日의 民智에 適合을 事萬無
 一니 破壞者는 破壞하고 建設者는 建設할지라도 娶妻食肉等도 躊躇하지 말고 國
 家의 安寧秩序와 社會의 風紀를 不紊하게 하는 範圍內에서 進行하면 或一部人士가 非
 謗을 지라도 此는 아즉 常識이 未熟하고 見聞이 狹少하며 時代의 思潮와 世界의 趨勢를
 不知하는 偏見者의 流이니 無足可論이라 我的 行을 責任만 充分이 進行하면 此亦 習慣
 이 되어 自然的으로 改良될지니 何者에 躊躇하지요 然이 今日法侶는 有而無하며 內
 有而外無하며 獨行而非 同行하니 此는 所謂掩耳偷鈴이라 社會人士에 何人이 不知하
 리오 此等幼稚를 識見을 突破하고 和盤托出하는 것이 卽二重人格을 突破하는 者니
 부디 假面과 虛僞와 因襲의 思想을 突破할지이다

現代人의 一部에 是 求道의 至誠心이 熱烈者一有하야 眞正으로 宗教의 關門을叩
 코자하는 要求는 世界民族의 思想界에 澎漲을 야스니 今般大戰后로 十二倍는 增加流
 行함을 不拘하고 今日佛敎界는 何故로 寂寞을 가此는 現代佛敎大衆라 稱하는 諸氏가

薄弱을 雰圍氣에 包含하야 恒常安協的 迎合에 依하야 其生命을 持續코자함에 在하니라
 然이 眞面目으로 宗教를 求코자하는 現代人士에 是 因襲과 虛僞가 充滿을 宗教家의
 態度로 憎惡를 買할지라 心靈上의 實際問題를 提燈하야 何事든지 解決코자하는 此
 時代에 可惜하다 因襲에 捉捕된 佛敎家는 依然히 突破치 못하고 虛僞의 假面을 被하야
 此에 接코자하니 可痛할바이다

現代人은 如斯히 人民의 本能性과 背馳하는 宗教에 依하야 滿足을 理由가 無하니라
 一切의 假面을 去한 然後에 先히 自己가 徹底한 人生觀의 上에 立脚하야 內的 統一을 斷
 行하고 一切人民의 友가 되며 師가 될 要素를 養成하는 것이 佛敎家의 先決問題인 줄 自
 信하노라 (完)

日本の文明과 三敎

法華宗管長 本多日生 內務省囑托

몬져 佛神儒三敎와 日本文明의 關係를 略說하고 다음에 三敎의 特色에 對한 管見을 叙述하겠다.

日本文明史를 極히 公平大觀하면 今日까지의 文明은 無論此三敎의 感化를 받은바
 一만히, 만일 此三敎를 버린다면 日本의 文明은 空虛일 것이다. 그럼으로 三敎의 研究